

데이비드 호크니의 콜라주, 피카소를 기억하다

글. 정유선 뉴미디어 아티스트/서울여대 초빙강의 교수

뒤샹은 예술가가 선택한 오브제 즉 레디 메이드(Ready made)를 통해 예술의 개념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미술사를 그전과 그 후로 나누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 하지만 2차원의 평면 회화에 이 레디 메이드가 나온 적이 있으니 그것은 피카소의 콜라주(collage)였다. 콜라주(collage)는 프랑스 말로 무엇을 화면이나 작품에 붙이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했던 찢어 붙이고 오려 붙이며 그 안에 그림을 그리고 하는 놀이와도 같은 작업이 그것이다. 입체파인 피카소는 인물이나 물체를 여러 시점에서 관찰하고 그것을 재조합해서 한 화면에 나타내는 작업을 하다가 우

연히 종이를 화면에 붙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물체 자체를 가져다 붙여 실제 입체감을 나타내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콜라주의 시작이었다.

피카소가 발견한 기법으로 한 최초의 콜라주 작품 1912년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을 보자. 이 작업에는 실물 장식 벽지를 배경으로 사용했고 밧줄을 프레임으로 둘렀다. 등의자 모양이 들어있는 일종의 식탁보가 여러 시점으로 그려진 정물과 섞이면서 2차원의 회화와 3차원의 공간 사이를 오고 간다.

데이비드 호크니의 콜라주

이러한 천재 피카소를 존경하여 그의 작업을 연구하며 자신의 작업에 주요한 기법으로 차용하고 영향을 받은 예술가가 있으니 영국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이다. 올해로 82세인 데이비드 호크니는 세계적인 현대미술의 거장이다. 영국 브래드 퍼드 출신으로 1960년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여 그린 수영장, 인물 작품을 통해 대중적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다. 그는 지난 60년 동안 회화, 판화, 드로잉, 사진,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아이폰/아이패드를 이용한 디지털 작업까지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며 다양한 시도와 왕성한 호기심을 보여주는 작가로 손꼽히고 있는 인물이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초기에는 리처드 해밀턴과 같이 팝 아트 작업에 영향을 받은 그림을 그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 Still Life with Chair Caning> Pablo Picasso, 1912년 / 출처 : 위키피디아



<The student: Homage of Picasso> 1973년 / 출처 : moma.org



<The Artist and model> 1973-1974년 / 출처 : art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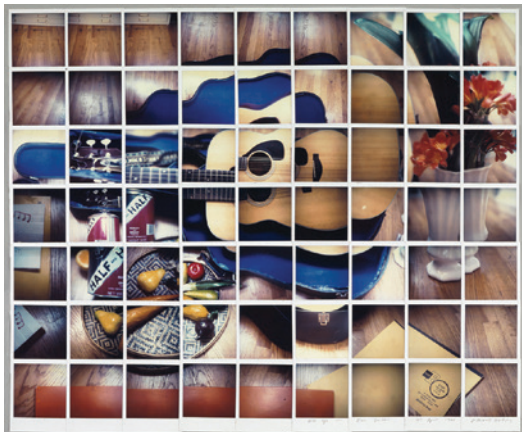
리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이주하여 그 자연의 풍경과 빛,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에 경도되어 자연주의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그러다가 1980년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입체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진 매체를 이용한 포토 콜라주를 선보이며 2차원의 평면에 3차원의 시공간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1960년 영국 로얄 컬리지 오브 아트 학생 시절 테이트 갤러리에서 열린 피카소의 전시를 보고 피카소에 매료된다. 수차례 미술관을 방문하며 피카소의 작업을 연구했으며 이후 심지어 미술계에서 엄청난 지탄을 받았던 피카소의 후기 작품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1984년에 뉴욕 구겐하임 뮤지엄에서 '피카소-1960년대의 중요한 회화 Picasso: Important Paintings of the 1960s'란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구겐하임 뮤지엄 홈페이지에서 그때의 강연을 오디오로 감상할 수 있다. 호크니는 1973년 피카소가 죽은 후에는 그에 대한 오마주 작업을 여러 점 남겨 그에 대한 존경을 그림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상단 그림 참조)

포토 콜라주, 여러 개의 시점

처음 사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던 호크니는 큐레이터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두고 간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서로 결합하여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만드는 포토 콜라주를 실험하기 시작한다. 1980년대 초 그는 결합<Joiners>이라고 불리는 사진 작업 시리즈로 140점 이상의 폴라로이드 포토 콜라주를 만들었고 펜텍스 35mm와 니콘 카메라 이용하여 231점의 포토 콜라주를 만들었다. 호크니는 하나의 대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번 찍으면서 그 다양한 시점들을 연결하여 콜라주 했다. 왜 호크니는 입체주의의 콜라주 기법을 차용하여 다양한 시점으로 찍은 사진을 콜라주 했을까? 거기서 얻은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사실 인간의 두 눈은 사진의 시점과는 매우 다르다. 우리는 두 눈으로 사물을 지각할 때 끊임없이 움직이며 깜박거리면서 언제나 초점을 맞춰가면서 관심에 따라 움직이거나 멈출지를 선택한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사물을 보며 지각하기 시작할 때 주변의 사물들은 우리의 두 눈에 즉각적으로



파란 기타가 있는 정물 <Still life with blue guitar> 1982년
/ 출처 : 데이비드 호크니 홈페이지



<피카소를 공부하는 니콜라스 와일더 Nicholas Wilder Studying Picasso> 1982년
/ 출처 : 데이비드 호크니 홈페이지

초점이 맞춰진다. 전통적으로 2차원의 평면에서 3차원을 구현해 하나의 고정된 된 시공간을 연출하는 선 원근법으로 대상을 보는 방법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우리의 시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단 하나의 움직이지 않는 눈을 전제로 하는 일 점 원근법의 극단적 형태가 사진의 시각이다. 원근법에 의해 이루어진 공간을 관찰하는 사람의 시점은 장면 외부의 어느 지점에 고정되어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눈은 언제나 움직이며 내가 보는 시점도 달라지게 된다. 대상은 나의 움직이는 시점에 의해 계속 변화하게 된다. 입체주의자들은 이러한

시각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화면을 구성해냈으며 호크니는 이러한 변화를 사진으로 무수히 찍고 그 간극을 포토콜라주로 보여주었다. 호크니는 다양한 복수의 시점을 통해 사진을 찍음으로써 사람의 눈과는 다른 사진의 오류를 보여준다. 몇 초 안에 즉각 적으로 화면을 재현해내는 사진 작업을 콜라주 한 포토콜라주는 그 오류 속에서 중요함을 가지게 된다.

호크니는 1982년도 “파란 기타가 있는 정물에서” 피카소가 콜라주의 소재로 즐겨 사용하던 기타를 주제로 작품을 구성하기도 한다. 또 피카소 책을 보고 있는 니콜라스 와일더의 초상을 찍어 복수 시점으로 콜라주 하여 노골적으로 피카소의 영향력을 드러내기도 한다.

700개의 사진을 이어 붙인 ‘페어 블러섬 고속도로’에서는 복수의 시점을 사용하여 단일시점보다 더 큰 공간을 창출하며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점에서 미국의 풍경을 관찰하는 포토콜라주를 선보인다. 지금은 디지털 이미지의 시대가 도래하여서 많은 이미지를 조합하여 더 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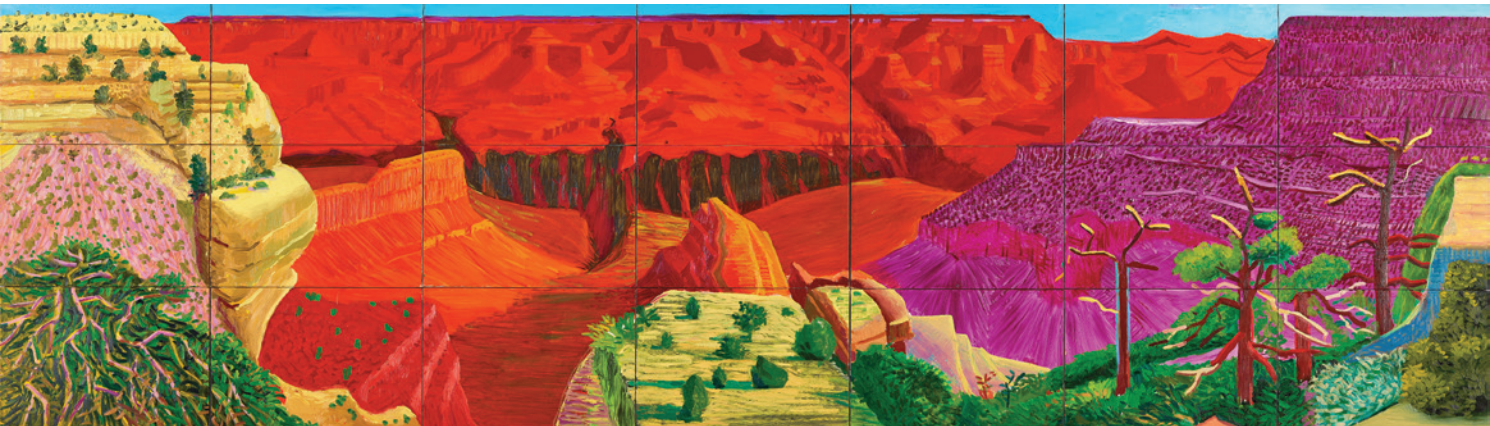
더 큰 공간, 멀티 캔버스 회화

데이비드 호크니의 회화 작품은 사진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더 큰 공간을 콜라주 했다. 1990년대 후반 호크니는 멀티 캔버스 즉 여러 개의 캔버스를 이용해 거대한 규모의 한 작품을 완성하는 형식으로 풍경화 작품들을 발표했다. 그는 광활한 그랜드 캐니언을 주제로 여러 작품을 발표했는데 1998년 작품인 <좀 더 가까워진 그랜드 캐니언>은 하나의 고정된 시점으로 포착한 사진 이미지로는 대자연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연풍경을 회화적 공간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또한, 2007년에는 50개의 캔버스를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4.5m×12m의 너비를 가진 ‘와터 근처의 큰 나무들’은 현장에서 스케치한 회화를 원본으로 하여 디지털 이미지로 환원시켜 확대한 후 관람자



<페어 블러섬 고속도로 Pear blossom Highway> David Hockney 1986년 / 출처 : 게티 뮤지엄



<좀 더 가까워진 그랜드 캐니언 A Bigger Grand Canyon> 1998년 / 출처 : 위키피디아

에게 그곳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회화적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설치작품을 재구성해 냈다.

이렇게 그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는 방법의 연구, 시공간의 확장 등을 작업으로 표현해냈으며 피카소의 콜라주는 그의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커다란 모티브가 되어 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데이비드 호크니 전' 서울 전시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2019년 3월 22일부터 2019년 8월 4일까지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영국 테이트 미술관과 공동 기획한 전시로 아시아에서 열리는 대규모 첫 개인전이라고 한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초기의 회화부터 최근 사진 작업, 그의 아이디어의 변화와

과정을 보여주는 드로잉, 판화 등 총 133점이 전시되고 있다. 그의 작업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포토 콜라주 작업은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모든 유명 작가의 중요한 시기 작품은 해외로 잘 돌아다니지 않으니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좀 더 가까워진 그랜드 캐니언' '와터 근처의 큰 나무들' 등의 중요 회화 작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최근작인 '2017년 12월, 스튜디오에서'라는 작품은 3천 장의 사진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어 붙여 제작한 하나의 사진 드로잉 작품인데 서울 전시에서 공개되었다고 하니 그의 최근의 연구를 한번 감상해보자. 자, 이제 데이비드 호크니의 시공간 속으로 빠져 볼 시간이다. 🌳



<와터 근처의 큰 나무들 Bigger Trees Nearer Water, Winter by David Hockney> 2007년 / 출처 : 위키피디아